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편견의 양상과 의미

-며느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황지현*

〈차 례〉

1. 낯선 환경, 적응과 부적응의 사이
2. 신인(新人)에 대한 선입견의 형성 양상
3. 편견을 둘러싼 가문내 상호작용
4. 편견으로 본 수용과 배제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 후기 국문장편소설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편견의 양상과 그 의미를 며느리 인물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조선시대 여성은 혼인을 통해 출생 가문에서 남편의 가문으로 편입되며,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 여부가 삶의 성패를 좌우했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고 작동하는 편견이 여성의 수용과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문의 며느리인 장혜앵과 설초벽은 모두 둘째 부인으로서 가문의 잉여적 존재로 진입한다. 이들을 둘러싼 가문의 평가는 부모의 인품, 소문, 출신 지역 등 사전 정보에 기반한 선입견에서 비롯되며, 혼례와 문안 인사라는 초기 대면을 통해 편견으로 고착되었다. 장혜앵은 ‘남자를 유혹할 존재’로, 설초벽은 ‘변방 출신의 괴물’로 규정되며 각기 다른 편견과 마주하게 된다. 이어서 이러한 편견을 둘러싼 상호작용을 동조를 통한 편견의 공유, 편견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 자기 증명을 통한 과거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동조를 통한 편견의 공유와 확산에서는 편견이 집단 내부의 동조를 통해 강화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장혜앵의 경우 가문의 어른으로 자리매김한 인물들의 부정적 평가가 가내인들에게 하방으로 확산되며, 설초벽은 시누이들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확산을 통해 내집단으로의 편입이 차단되었다. 이러한 편견의 확산은 가문 내 위계와 세대 간 권력 관계를 반영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강사

한다. 인물의 일상에 편견이 미치는 영향에서는 초기 평가가 이후 인물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장혜앵은 남자를 미혹하게 하는 여성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설초벽은 긍정적 첫인상으로 인해 유사한 상황에서도 비난을 면하였다. 자기 증명을 통한 파기에서는 두 인물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유씨삼대록>에서의 편견은 가문의 질서와 내외집단의 경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장치로 기능한다. 내집단으로 수용된 여성은 강한 지지를 받는 반면, 배제된 여성의 고통은 비가시화된다. 내집단으로의 수용과 배제는 유동적이다. 하지만 여성의 노력으로 인해 편견이 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 가문의 일원들의 책임은 소거되었다. 이는 여성이 평범한 일상을 구가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얼마나 지난하고 치열해야 하는가를 반증한다.

주제어 편견, 동조, 집단역학, 여성, 고전소설

1. 낮은 환경, 적응과 부적응의 사이

진화론적으로 인지적 절약자인 인간에게 일정한 사고와 판단의 틀인 편견은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¹⁾ 하지만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편견을 방치하거나 부추기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편견에 대한 객관적 성찰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인기를 구가한 국문장편소설 또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많은 편견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당대의 혼인 제도와 맞물려 특수한 차별과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여성의 삶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남성의 것과 변별된다. 먼저

1)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판단의 어렵법(judgmental heuristics)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문제해결에 대한 정신적 지름길에 해당된다. 진화론적으로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 편견이라는 개념 또한 기본적으로 판단의 어렵법에 근거해서 이해할 수 있다. (Elliot Aronson, 구자숙 외 역, 『사회적 동물』, 탐구당, 2010, 211쪽 참조)

삶의 영역이 가정 혹은 가문이라는 범주 내로 제한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영역이 혼인을 통해서 출생 가문으로부터 상대 남성의 가문으로 이전 편입된다는 것이다.²⁾ 남성이 동일한 집단 내에서 연속성을 띠고 살아가는데 반해, 여성은 새로운 관계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결국 낮은 타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나아가 집단에 수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공 여부가 여성의 삶 전반을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성 가문의 일원들은 특정한 기준으로 이 낮은 인물을 평가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이다. 외부인이었던 여성은 내집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집단의 공식적, 비공식적 규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편 자신이 집단에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한다. 해당 지점은 조선 후기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리라 본다.

이 글에서는 국문장편소설 〈유씨삼대록〉에서 유문의 며느리로서 가문에 편입되는 두 인물 장혜애와 설초벽을 통해 남성 가문이 어떤 방식으로 신인(新人)을 평가하고 수용 또는 배제를 결정해 나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³⁾ 이들은 유문에 진입한 초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결국

2)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8, 83쪽 참조.

3) <유씨삼대록>은 비현실적 요소가 배제되어 있어 향유층의 일상과 그것을 추동하는 여러 생활 감정들을 이해하는 데 유효한 텍스트로 일찍이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 며느리로 가문에 진입하는 여성들의 입지 변화 폭이 크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요소라고 보았다. <유씨삼대록>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서 혼인으로 유문에 진입한 여성의 삶에 주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승복,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정-부실 갈등의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 77, 한국어교육학회, 1992; 장시광,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어문논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최수현, 「〈유씨삼대록〉 속 이민족 여성의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공혜란,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부부간 폭력의 대물림 고찰」, 『외국문학연구』 69, 한국의국어대학교, 2018; 김서운, 「〈유씨삼대록〉에 형상화된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 갈등과 그 현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4; 고은임, 「고전소설의 처첩 관계와 사양지심」, 『문학치료연구』, 74, 한국문학치료학회, 2025.

존중을 이끌어 낸 입지전적인 인물들이다.⁴⁾ 한편 두 명의 처를 인정하지 않는 가법을 엄격하게 고수하던 유문에 둘째 부인으로서 진입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유문의 잉여적인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부귀한 가문에서 재주와 미모가 뛰어난 귀한 딸로 태어나 자신과 다르지 않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장혜앵, 영웅호걸에 뜻을 두었으나 돌아가신 부모의 혈맥을 잇기 위해 혼인이 필요했던 설초벽은 상대 남성과의 관계에서는 당당할 수 있었지만 둘째 부인이라는 점에서 유문 내에서는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에게는 유문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거나 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선택지가 있었고, 실제로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걷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두 인물이 유문에 진입하기 전부터 그들을 향한 일정한 선입견이 있었고 유문의 구성원이 된 후에는 그러한 선입견이 편견으로 고착되어가거나 제거되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유문이 이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작동한 인식의 틀과 그것이 형성되고 파기되는 과정에서 편견을 중심으로 한 인물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신인(新人)에 대한 선입견의 형성 양상

새로운 구성원이 진입하기 전부터 집단은 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4) 장혜앵과 설초벽에 대해서는 인물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2009; 한길연, 「개과한 여성의 독보적 인물로 거듭나기 과정의 서사화: 『유씨삼대록』의 '장혜앵'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3, 한국여성문학회, 2021.

<유씨삼대록>에는 이민족 여성으로서 유문에 진입하여 끝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 인물로 양성공주가 있다. 해당 사례 또한 편견에 대한 성찰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민족 여성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다른 인물과 함께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내집단에 수용된 경우인 장혜앵과 설초벽에 한정하고자 한다.

하고 일정한 인식을 형성해 나간다. 선입견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이다.⁵⁾ 이러한 인식의 틀로서의 선입견은 향후 해당 구성원에 대한 수용과 배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선입견이 어떻게 형성되고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대면 전 사전 정보

조선시대 혼인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아니라 중매를 통한 가문간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주변인들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국문장편소설에서도 혼기가 찬 자식을 둔 부모가 이를 기반으로 혼인을 결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남성의 가문에서 신인(新人)에 대한 사전 정보는 그 부모의 인품과 가문에 대한 세간의 평가 및 여러 소문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장혜영의 경우를 살펴보면, 장 상서가 유세형의 뛰어난 기질을 알아보고 구혼하자 유우성은 먼저 장 상서의 인물됨을 기늴한다. 이때 유우성은 그가 풍류를 겸비한 재상이며 인품이 관대하고 후덕하므로 딸도 부친을 닮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흔쾌히 수락한다.⁶⁾ 유우성은 부친 장 상서를 통해 장혜영이라는 미지의 인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인품을 근거로 자식을 기늴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⁷⁾ 좋은 집안에서 교육을 받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예법

5)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d91f52b4934450b997995ad55843ef4>

6) 친히 뉴부의 니르러 승상귀 뵈고 한훤 후 혼스로 근절이 구혼하니 승상이 으지 임의 니히 어리나 임의 수도훈 위의 이시니 혼취히미 밧바 경히 맛당훈 곳을 언디 못히여 정히 우민히더니 당상셔의 당면히여 이긋치 구혼히믈 보고 또훈 당상셔 풍류지상으로 관후히믈 보고 그 녀의 달마시리라 히여 쾌히 허훈하고... <유씨삼대록> 권지일, 73~74면.

을 익혔을 것이라는 추정은 일견 합리적이다. 하지만 해당 장면에서 유우성은 부친의 성품을 근거로 장혜앵의 기질 또한 그와 유사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상 국문장편소설에서는 주동 가문은 물론 다른 가문에서도 부모와 판이한 성품을 가진 인물들이 종종 등장한다. 따라서 장혜앵의 성품에 대한 확신은 근거가 다소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문으로 인해 선입견이 발생한 경우이다. 장혜앵은 유세형과 진양공주의 혼인으로 과혼을 당한 후 절개를 지키며 평생 수절할 뜻을 밝힌다. 그 결심을 전해 들은 유문은 복합적 태도를 보인다. 이 시점에서 장혜앵은 훌륭한 가문에서 성장하여 부모의 교육을 잘 받았으며 절개를 이은 시족 여성이자 연민의 대상이다. 하지만 유세형과 진양공주의 불화가 지속되면서 미모로 유세형을 침혹케 한 존재에 대한 부담스러움 또한 감지된다. 물론 장혜앵과 유세형이 혼인 전 마주치게 된 것은 장혜앵의 잘못이 아니며 부친 장 상서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더불어 유세형이 진양공주와의 혼인 이후 부인을 박대하고 난동을 부린 것에 장혜앵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는 없다. 하지만 “남자를 미모로 침혹하게 한다”는 프레임은 혼인 이전은 물론 유문에서 생활하는 동안 장혜앵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으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혼인이 재결정된 후 장혜앵을 며느리로 맞이할 유우성의 마음 속 근심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의 결과물이다. 처음 혼인을 결정할 당시에는 장 상서의 인품을 근거로 그 딸도 훌륭할 것이라고 단정했었으나, 이 시점에 와서 인품을 알 수 없어 걱정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변화는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 같은 판단의 유보는 장혜앵으로 인해 유세형 부

7) 유문에서는 진양공주와의 혼인을 앞두고서도 “돌아가신 황제와 태후마마께서 대순과 황영의 성스러운 덕이 계시니 공주가 높은 교혼을 받으시어 어진 행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모친 후궁의 빙산 같은 세력과 위엄은 아닐 것”이라고 하였다. 이 두 사례는 긍정적 인식은 가지게 된 경우지만, 이와 달리 상대 부모의 인품에 하자가 있으니 그 딸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부가 불화를 겪는다는 소문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혜애가 유문에 입성한 후 그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수반되는 근거가 된다.

한편 설초벽은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사를 주선할 친척 어른도 없었기 때문에 장혜애와 같이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유문이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설초벽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은 그가 과거장에 나아가 문무장원을 하고, 황제의 명으로 유세창과 혼인이 결정된 이후이다. 장혜애에 대한 선입견이 주로 부모나 주변적 상황과 소문으로 구성되어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던 것과 달리, 설초벽은 그 자신의 행적과 출신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한꺼번에 수용되면서 선입견을 구성하고 있다. 유문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초벽은 변방의 외곽 지역 출신이다. 그는 일찍 부모를 잃었으며 남장을 하고 지내다가 외간 남자와 동행을 하였고 과거장에 나아가 문무장원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황제 앞에서 자신의 혼사를 스스로 주선한 인물이다.

혼인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문의 반응은 냉담한 것을 넘어 적대적이기까지 하다.⁸⁾ 설초벽이 작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 부인은 그를 “열협머느리”라고 지칭하면서 근심하기에 여념이 없고 유현영, 유옥영 등 유문의 여성들은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설초벽의 행위가 부녀자의 덕에 어긋난다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를 “변방의 괴물”이라고 일컫는다. 한편 설초벽의 적국이 된 유세창의 부인 남소저의 우월함을 치켜 세운다.

주목할 것은 이때 설초벽의 행위는 물론 그의 출신에 대한 일정한 고정 관념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⁹⁾ 이들에게 있어서 설초벽은 ‘변방’의 존재

8) 니부인이 미우를 뺨기여 굴오더 “나는 용졸흔 부인이라. 이런 널협을 주부로 흐리오. 괴롭고 괴로울디라. 삼이 종시 아름다운 조식이 아니로다.” 낭한님 부인이 쇼왈 “부덕은 대가 덕요의 더오미 업스니 녀즈의 삼낙늬되 가히 당치 아니토소이다.” 샤어스 부인이 낭쇼왈 “삼형이 남저의 속노흐미 분의 넘어 변방 괴물을 어더 계시니 그러커든 독헌의 쥬야 좁겨 그리 호호여 계시리잇가.” <유씨삼대록> 권지육, 4~5면.

이다. 시모와 시누이가 될 유문의 여성들은 아직 설초벽을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예법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숙녀로서 어떤 자질이 있는지 아는 바가 없다. 설초벽이 부녀자로서의 몸가짐을 잘 익히고 훌륭한 성품을 지녔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이들은 변방이라는 지역적 범주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선입견을 통해 설초벽의 내적 특질을 단정적으로 일반화하고 있다.¹⁰⁾ 이들은 설초벽을 접하기 이전에 이미 변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변방은 문명과 멀리 떨어진 지역이며, 그 지역 출신은 기본적으로 열등성과 야만성을 내포하리라는 것이다. 변방 출신이기 때문에 열등하고 그렇기에 유문의 며느리로 부족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중심부에서 벗어난 존재에 대한 거부감과 우월감을 동시에 읽을 수 있다.

2) 혼례식에서의 첫인상

국문장편소설에서 혼례식은 신부와 신랑의 인물됨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그들의 인품까지도 가늠하게 함으로써 향후 서사 전개에 단서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 단순히 이목구비의 생김새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 행동거지 등 전반에 걸쳐 자세한 묘사가 이루어진다. <유씨삼대록>에서 가장 우월한 인물로 그려지는 진양공주의 경우 혼인날 자태

9) 고정관념은 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차이에 관계 없이 그 집단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특징을 부여하는 것이다. Elliot Aronson, 구자숙 외 역 (2010), 앞의 책, 313쪽.

10) <유씨삼대록>에서는 이민족인 양성공주에 대해 부정적인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이에 대해 최수현은 “<유씨삼대록>에서 명인들은 북원인에 대해 문명의 교화를 받지 못해 미개하고 야만스럽다는 시선을 보인다. 이같이 북원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양성공주에게도 그대로 투영된다.”라고 하였다.(최수현(2012), 앞의 글, 326쪽) 물론 작중 융화에 실패하는 양성공주와 달리 설초벽은 한족 출신이다. 하지만 같은 한족이자 사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변두리 지역의 출신이라는 점이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와 기질의 빼어남, 이마에 어린 성스러운 덕을 보고 시부모가 매우 기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복잡한 심정으로 장혜애를 맞이한 유문의 반응은 어땠을까? 먼저 서술자는 장혜애의 아름다운 외모를 길게 묘사하는 한편으로 손님들이 모두 칭찬하면서 유우성과 이 부인에게 축하를 건넸다고 하였다. 하지만 집안 사람들의 내면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황제와 태후의 사랑을 오롯이 받고 있는 진양공주와 유세형 부부의 화락이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장혜애를 직접 보니 그동안 추측으로 돌던 유세형의 부부 관계가 아름다운 장혜애로 인해 소원하다는 소문에 힘이 실린 것이다.¹¹⁾ 한편 진양궁의 궁인들은 진양공주의 혼인날과 장혜애의 혼인날 유세형이 보여준 판이한 태도를 보고 분한 마음에 울적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유우성과 이 부인은 여기서 나아가 더 깊은 근심을 보인다. 앞에서 보았듯이 유우성은 장혜애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 문제는 혼인날 유우성과 이 부인의 눈에 비친 장혜애가 진양공주와 같은 숙녀는 아니라는 것이다.¹²⁾ 이러한 부정적인 첫인상은 향후 장혜애를 대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애초에 분란의 씨앗이 될 소지가 있는 존재가 현숙하지도 않다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

11) 가동이 부매 공췌 드러온 지 돌시 다나시디 흥번 흥연흥 스식이 업더니 금일 이 굿흐물 보고 당시의 연괴를 알고 차탄하여 공췌를 잔잉이 녀이며... <유씨삼대록> 권지이, 20면.

12) 좌등이 다 칭찬하고 하례하디 승상과 부인으로 일점 희식이 업고 도로혀 근심흔는 빗치 있느니라. 운슈선성이 무려 왓 “신부의 즈미 운치 2장 희한하나 현대와 현수의 불예흔는 아니 세형을 미안하미나.” 승상 왓 “쇼데는 사름의 식을 보디 아나 덕을 취하느이다.” 선성 왓 “신뵈 절의 2장 놓흐니 그 덕을 쏘흔 알니로다.” 승상 왓 “왕교량 가운데 다 절이 느즌 거시 아니로디 유한정영흔 숙녀 아니니 당금 진양공췌 진짓 숙녀어늘 세형이 그릇 숙녀를 업고흐 운희의 즈식을 취하엿느니라. 엇디 불행치 아니하리잇고.” 선성이 점두 왓 “현대의 붉으미 사름의 미출 배 아니라.” 허더라. <유씨삼대록> 권지이, 20~21면.

이다. 이로써 장혜애는 요주의 인물이 된 채로 유문에서의 삶을 시작한다.

이와 달리 설초벽은 매우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긴다. 서술자는 아름답고 탈속한 분위기를 풍기는 설초벽의 외모를 자세히 묘사한 다음 유씨 집안 부녀자들 가운데 가장 빼어나다는 평을 내린다. 당일 시부모의 반응이 언급되지는 않으나 자리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혹 이전의 행동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도 다 흠모할 정도”라고 함으로써 부정적 선입견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¹³⁾ 이를 뒤집어 보면, 혼인이 결정되었을 당시에는 이 부인과 세 소저 외에도 유문의 가내인들이 설초벽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첫인상은 과연 사전 정보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 선입견을 완전히 타파하였을까?

당일 저녁 이부인이 남소저를 불러 위로하는 말을 보면, 설초벽의 뛰어난 품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곁에 있던 유설영, 유현영, 유옥영 등 시누이들은 모두 신부가 기상이 활달하고 계책을 꾸며 혼인을 성사시킨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면서 험뜯고 얹잡아 보는 것으로 서술된다. 심지어 곁에서 설초벽을 용납하라고 말하는 진양공주의 말을 듣고서도 유설영 등은 신부의 염치가 좋다며 비꼬기까지 한다.¹⁴⁾ 이 장면을 통해 완강한 선입견이 쉽사리 타파되기 어려우며, 설초벽이 내집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설초벽의 뛰어난 품성을 인정하는 것이 남소저를 위한 근심으로 직결되는 점도 흥미롭다.¹⁵⁾ 이 부인과 세 유소저에게 남소저는 이미 유문에

13) 만좌 체빈이 교구칭찬하고 혹 그 형스름 우이 너이더니 다 흠이호를 췌듯디 못하니 가히 그 위인을 알디라. <유씨삼대록> 권지육, 7면.

14) 삼쇼괴 낭쇼 왈 “신인의 넘치 도호미 옥썬의 문의 능히 용납하니 엇디 고이치 아니리오.” <유씨삼대록> 권지육, 10면.

15) 차아의 니부인이 축을 불히고 너부를 모화 담화홀 시 남시를 불너 그 손을 잡고 탄식 왈 “삼오의 괴상이 일처로 늘글 위인이 아니나 현부의 청덕이 능히 진복홀가 호엿디니 좃시 이런 일이 이시니 운익이라. 인력으로 못홀 거시오. 신인이 7장 비상홀 분

들어와 온전하게 유문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내집단이다. 그런데 설초벽의 존재는 내집단인 남소저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부인은 며느리인 남소저에게 운액은 인력으로 어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일생을 염려한다고 말한다. 혼인날 긍정적인 첫인상을 심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부인에게 빼어난 설초벽의 모습이 오히려 근심이 되었고, 세 소저에게는 여전히 부정적인 선입견을 지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설초벽은 장혜앵처럼 요주의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3) 일상 속 찰시(察視)를 통한 고착화

혼인 후 장혜앵과 설초벽은 공식적이지아 표면적으로 유문의 구성원이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일원으로 인정을 받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들은 이제 일상 속에서 자잘한 언행들을 평가받으며 가문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가늠하는 대상이 된다.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문안 인사 자리이다.

장혜앵의 경우 첫 문안 인사에서 유세기·소소저 부부를 유세형·장혜앵에 비교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드러난다. 혼례식에서도 얼굴과 행동거지를 보기는 하였으나 문안 인사 자리에서는 더욱 꼼꼼하게 살필 시간이 있다. 그런데 시부모의 눈에 비친 장혜앵은 이마에 살기가 등등하고 눈에는 독한 빛이 어리어 있어 소소저의 온화한 기운과 대조를 이룬다.¹⁶⁾ 이러한 인물 이라면 경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유우성과 이 부인은 곧바로 그를 앞으

아니라 삼으의 흑흑미 등한치 아니니 현부의 일성을 어이 넘너치 아니리오...” <유씨삼대록> 권지육, 7면.

16) 부마를 보니 준상훈 괴질과 화려한 풍치 일세 호걸이로더 굳즈 도덕은 형을 밋디 못하고 당시 쏘흔 용피 절세하나 미우의 살기 경경하고 안츠의 독흔 빗치 은은하니 밋츨니 소시의 완전흔 화기를 버라디 못홀디라. 부되 다 거거 아냐.. <유씨삼대록> 권지이, 22~23면.

로 불러 자신의 분수를 알고 참람하게 정실의 자리를 넘보지 말라는 경고를 한다. 이를 뒤집어 보면, 유우성과 이부인은 이미 장혜애가 참람한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때 장혜애는 겸허한 대답을 하고는 오열한다.¹⁷⁾ 그런데 시부모는 이를 더욱 좋지 않게 여긴다. 장혜애의 대답만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유우성과 이 부인이 주목하는 것은 태도와 기색이며, 장혜애는 여기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문안 인사 자리에서 종종 보인 장혜애의 애원한 태도는 시부모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유세형을 침혹하게 하리라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설초벽 또한 문안 인사 자리에서 품평을 받는다. 그는 장혜애와 달리 탈속한 기질이 신선같아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고 되어 있다. 유우성은 정실인 남소저와 잘 지낼 것을 당부하는 훈계를 하면서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가볍을 어긴다면 일생을 평안히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는다.¹⁸⁾ 첫 문안 인사 자리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발언은 영웅호걸의 풍모를 지닌 설초벽을 제압하고 가볍에 따르도록 하는 동시에 그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 또한 깔려 있다. 이에 설초벽은 자식을 얻는다면 유세창과의 인연을 끊고 산간에 지내겠다고 말함으로써 쟁총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는데, 유우성은 그 대답에 만족한다. 하지만 문제

17) 당시 업디여 명을 드르매 홀연 두 줄 청뉘 나샹의 찌러지를 씨뒸디 못흐터니 안식을 고치고 니러 비사 왈 “쇼첩은 심규 향암된 인심이라. 일심을 뉴시 성명만 덕회여 늙고져 호옴디니 황은이 망극호고 진양옥쥬 덕으로 말미암아 성문의 의탁호으나 엇디 감히 공쥬로 동넬이 되며 방즈흔 뭍음이 이시리잇고. 삼가 안전의 브레질호는 시네 되어 구고 흥은을 의지호여 종신히를 원호는이다.” 설파의 옥용이 참담호고 성음이 오열호니 좌위 다 늦빰출 고치고 구과 더욱 깃거 아니나 강잉호여 화식으로 위로호더라. <유씨삼대록> 권지이, 23~24면.

18) 신부 영웅의 도량과 널스의 풍취 이시니 설설흔 속터는 더러이 녀이러니와 횡혀 냉위 계구언딩 무위우후라 호는 뜻이 이셔 선후를 아라 복종치 아닌 죽 나의 가버이 아니니 신부의 일성이 안향키 어려울디라... <유씨삼대록> 권지유, 11면.

는 설초벽의 이러한 발언과 태도가 시족 부녀의 은유함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해당 장면에서 승상과 이 부인은 설초벽의 대답 내용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활달한 태도를 무던하게 여긴 반면 유옥영 등은 침을 뱉으며 비웃는다.¹⁹⁾ 이러한 태도 차이는 승상과 이 부인은 시부모로서 정실과 부실의 위계를 중시했다면, 유옥영 등은 설초벽이라는 인물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대목에서 유우성과 이 부인은 설초벽이 쟁송을 하지는 않으리라는 확신을 얻은 반면, 그가 유문의 일원으로서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편견을 둘러싼 가문내 상호작용

두 인물은 일정한 선입견이 전제된 상태에서 한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장에서는 편견의 확산과 그것이 장혜앵, 설초벽의 삶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양방향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동조를 통한 편견의 공유와 확산

〈유씨삼대록〉에서 장혜앵과 설초벽을 향한 편견의 형성과 강화는 유문 일원의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관점의 총합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는 편견이 형성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이들의 참여가 수반되는 동조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물에 대한 평가가 보다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설초벽이며, 장혜앵은 개별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문면에 드러나는 대목의 파급력을 통해 동조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장혜앵의 혼인날로

19) 승상과 부인이 설시의 쾌활한 형스를 무던이 보느니라. 옥영 등이 반순타비하여 웃더라. <유씨삼대록>, 권지육, 13면.

돌아가보자. 이때 장혜앵은 손님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부정적 기색을 내비친 것은 유우성과 이 부인 등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다수의 의견이 모아진 쪽으로 평가가 기울었다고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유문에서 장혜앵과 함께 살아갈 가내인들이 신부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만 온전히 기대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내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집안의 어른인 유우성과 이 부인의 반응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설사 그들이 직접적으로 견해를 밝히지 않더라도 얼굴에 드러나는 기색만으로 장혜앵에 대한 평가를 추측할 수 있다. 가내인들의 입장에서는 만약 자신의 평가와 유우성, 이 부인의 기색을 살펴 추측한 평가에 차이가 있다면 후자로 기울 수밖에 없다. 동조 압력은 실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가상의 압력 또한 포함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요소가 작용한다. 먼저 승상과 이 부인은 해당 집단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지인지감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전문성이나 권위를 가졌거나, 구성원들이 그 개인에게 중요하거나, 구성원들이 어떤 측면에서든 그 개인과 비슷할 때 동조를 유발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²⁰⁾ 가문 단위의 집단이 지닌 위계성을 감안하면 승상과 이 부인의 반응이 가내인들에게 미친 동조 압력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문안 인사 자리에서도 반복된다. 이때는 승상과 이 부인은 물론 유세기 또한 장혜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언급되는데, 유세기는 집안의 종통을 잇는 인물인 동시에 그 인품과 기질의 빼어난은 연작의 전편인 <유효공선행록>의 유연을 방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 그가 유세형과 진양공주 사이에 문제적 사건이 발생한 후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장혜앵에게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많은 가내인들을 앞에서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²¹⁾

20) Elliot Aronson, 구자숙 외 역(2010), 앞의 책, 27쪽.

21) 심통의 크게 원망하여 소식이 변호를 찌뚫디 못호는디라. 부인이 알고더 모르는 채호

이상을 정리하면, 장혜애에 대한 편견을 둘러싼 동조는 가문내 지위가 높은 이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중심으로 가내인들에게 하방으로 확산되는 형태를 띠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설초벽에 대한 편견은 거침없이 공유된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유설영, 유현영, 유옥영으로 설초벽에게는 시누이가 되는 이들이다. 물론 유우성과 이 부인 또한 설초벽의 모든 면에 대해 만족한 것은 아니다. 이들도 그의 언행에 사족 여성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설초벽이 유세창과 남소저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면서 쟁송을 할 것인가의 여부 외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설초벽이 문무장원을 하고 작위를 받아 여느 사족 여성과 다른 특수성 또한 감안하였을 것이다. 유우성은 설초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전혀 취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는 한편 이 부인은 설초벽의 훌륭한 자질을 인정하는 동시에 유세창의 정실인 남소저를 걱정할 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유우성과 이 부인의 미온적 태도와는 별개로 유설영 등이 설초벽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얻은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그것이 점차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유설영 등은 설초벽에 대해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부정적 인식을 서로 공유하는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힌다. 문면에서 유문의 다른 여성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의견이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확인할 만한 대목은 없다. 하지만 유설영 등이 유문의 가내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설

고 한님이 그 괴식을 보고 개탄호를 이기디 못호여...당시 드러 월 “현수는 성문범가 녀자로 삼종스덕의 넬 아라실디라. 사떼 무식 불명호여 공주기 드러호 죽 수수기 호호 환갈긔디 아닐 아라샤 명분을 삼가시고 니조를 두터히 하샤 턴을 저버리디 마르쇼셔 혹성이 당돌하나 사떼의 형이 되어 동성의 집을 화평과자 일단 정성이 구터여 공주를 위호 뜻만 아니니이다.” 이때 한님이 평생 온등후호여 가니 상히 그 회로와 담쇼를 두디 못호엇더니 홀연 허다 설해 여츠호여 밍닐호 안식과 준절호 언에 쥌곰도 당시의 안면을 개렷호미 업고 스리로 경계호미 이긋호를 보매 좌위 다 안식을 곳치고... <유씨삼대록> 권지이, 54~56면.

초벽에 대해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장혜앵의 경우와 비교하면 설초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틀은 동 세대 안에서 수평적 확산력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장혜앵은 유우성, 이부인, 유세기 등 가문내에서의 높은 지위 및 지인지감에 대한 권위를 지닌 인물들이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주도했다면, 설초벽은 2세대에 속하는 유설영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²²⁾ 장혜앵에 대한 지적이 면전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설초벽을 둘러싼 비방과 근심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설초벽에 대한 거북함은 그가 유문에 온전히 수용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었을 것이며, 그 또한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인물의 일상에 편견이 미치는 영향

처음 혼인이 결정되었을 당시만 해도 장혜앵이 유문에 적응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세형과 진양공주의 국혼으로 인한 과혼, 진양공주의 주선을 통한 혼인 재결정을 거치면서 그의 입지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지만 장혜앵은 유문에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한 부인만을 둔다는 가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부마인 유세형이 둘째 부인을 두는 것은 국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부모인 유우성과 이 부인은 첫 대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가 하면, 진양궁 궁인들의 적대감도 감내해야 했다. 장혜앵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그가 유문의 일원으로 온전히 수용되지 못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장혜앵을

22) 사회적 편견에 대한 동조 문제에 대해 김서윤은 양성공주와 소경문의 갈등 사례를 분석하면서 “소경문은 복원을 명시하는 사회적 편견에 동조하되 다만 아내인 양성공주를 통상적인 복원인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예외적 존재로 여길 따름인데, 이는 조정 관료인 그가 양성공주에 비해 동료집단의 압력에 민감한 사회적 자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은 바 있다. (김서윤(2024), 앞의 글, 276쪽)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2장에서 장혜앵에게 “남자를 미모로 침혹케 할 것”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음을 짚은 바 있다. 이러한 편견은 실제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을 어디로 귀인시킬 것인가 하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장혜앵의 삶에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은 유우성이 아들 유세형과 진양공주 부부의 소원함을 두고 세형의 편벽된 행동이 장혜앵의 내조가 어질지 못한 까닭이라고 지적하는 장면이다.²³⁾ 그리고서는 장혜앵의 처소를 옮기고 협실에서 지낼 것을 명함으로써 유세형과의 만남 자체를 차단해버린다. 물론 장혜앵이 실제로 유세형에게 진양공주를 참소해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시부인 유우성은 장혜앵이 계교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더불어 유세형과 진양공주는 혼인 이후 가까운 사이로 전혀 발전하지 못했으며 동침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런데도 부부의 불화가 장혜앵의 내조 문제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는 혼인날의 첫인상과 이후 문안 인사에서 굳어져간 “남자를 침혹케 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상황의 원인을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설초벽의 등장으로 유세창과 남소저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유우성과 이부인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한다. 애초에 설초벽에 대한 시부모의 주시는 장혜앵에 비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중 설초벽은 흠이 없는 인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초반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누적되고 굳어진 장혜앵과 달리 가문에 위기를 몰고 올 인물로서 주의 대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유세창과 남소저의 부부 관계가 틀어지자 이 부인은

23) 이제 세형의 형시 이긋치 편벽하니 이는 그대 니조를 어지리 못함이라. 내 잠간 으조를 칩고져 하니 협실의 녀와 혼가지로 이셔 니화평의 가지 말나. <유씨삼대록> 권이, 71면.

설초벽이 아니라 그가 속한 부부 관계에 주목한다. 유세창의 부부 갈등을 놓고 설초벽의 과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설초벽은 쟁송을 하면서 남편을 외입케 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설초벽이 유문에 진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부인이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인식은 혼례식 및 문안 인사 자리에서 보여준 모습을 바탕으로 내린 “기질이 빼어나고 탈속하다”는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 장혜앵이 분란을 일으키리라는 혐의를 받으면서 주시의 대상이 되고 갈등이 발생하자 곧바로 의심을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설초벽은 긍정적 평가로 인해 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인의 제공자로 지목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로 보면 혼례식에서의 첫인상 및 문안 인사에서의 평가가 향후 그 인물의 언행을 재단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인물에 대한 평가가 상황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기 보다는 평가가 상황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른 인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문장편소설에서 애정의 가변성에 대해 동요하는 여성 인물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문에서는 남소저의 슬픔에 대해 숙덕(淑德)을 갖춘 부인조차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수용적인 입장을 취한다. 남소저는 혼례식에서부터 긍정적인 첫인상을 심어주었으며 다음날 문안 인사에서도 호평을 받아 탈없이 유문에 편입된 인물이다. 그가 유세창의 변심에 대해 마음을 쓰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는 <유씨삼대록>이 일상 속에서 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감정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번 현숙한 부인으로서 가문에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러한 인식의 틀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 점은 그 반대 방향으로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자기 증명을 통한 파기

〈유씨삼대록〉의 장혜앵과 설초벽은 잉여적 존재로서 유문에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장혜앵과 설초벽이 자신들을 둘러싼 비난과 억측을 몰랐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장혜앵과 설초벽이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는 점이다.

먼저 장혜앵의 경우를 보면, 그는 정실의 자리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시부모의 경계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방자한 마음은 전혀 없으며 쓰레질하는 시녀의 소임을 맡고 싶다고 하여 자신을 한껏 낮춘다. 이후에도 진양공주가 오면 당에 내려가 맞으며 현격한 격차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가내인들은 장혜앵이 공손하다고 여기고 유세형은 낮은 지위를 감수하는 모습을 가련하게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언행으로 유승상과 이 부인 등의 부정적 인식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 외의 가내인들에게는 일정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혜앵은 이와 함께 진양공주가 유세형과 가까워질 수 없도록 참소를 하는 등 악행을 저지른다. 장혜앵의 행동은 초반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지만 결국 꾸며낸 말들이 탄로나면서 얼마 되지 않던 가내의 입지마저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등불 놀이를 하는 대목에서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였지만, 장혜앵은 자신을 따로 부르지 않는 이상 차마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진양공주를 독살하려 하는 등 갖은 곡절을 겪은 장혜앵이 징치되지 않고 유문에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진양공주를 이어 유우성의 총부(冢婦)가 된다.²⁴⁾

24) 주동 인물인 공주를 살해하려고 했던 인물이 그 뒤를 이어 가문을 이끄는 지위에 오른다는 점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길연은 장혜앵이 개과천선한 이후 총부가 되기까지 그의 행적을 밝히면서 “유사 사건을 통한 시험대 통과하기, 도덕성 고양을

모든 악행이 탄로나 목숨마저 위태로웠던 순간 그는 진양공주와 이 부인의 두호 및 진심어린 훈계 속에서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한다. 물론 개과천선을 결심했다고 해서 곧 가내의 입지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제 모든 가내인들에게 알려진 상황이다. 남자를 침혹케 하고 집안을 어지럽힐 것이라는 편견은 장혜애의 행동으로 인해 사실로 판명되었다. 이제 장혜애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자기 증명의 과정이다. 실제로 장혜애은 아침부터 진양궁에 나아가 하루종일 공주와 지냈으며 궁인들을 겸손하고 정숙한 태도로 대한다. 이에 대한 가내인들의 평가는 “전후에 두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시부모와 동서, 시누이들이 흠잡을 것 없이 사랑하면서 친밀하게 지낸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유세형이 장혜애를 철저히 냉담하게 대하는 와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혜애의 변화는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다. 실제로 유세형과의 관계 회복은 서로 안부를 묻지 않은 지 5년이 지난 후였다. 그동안 장혜애가 일관된 모습으로 유세형의 애정 유무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는 유문에서의 입지를 회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자를 침혹하게 할 것”이라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비로소 유문에 온전히 편입될 수 있었다.²⁵⁾

한편 설초벽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 자신의 입지를 위해 지난하고 구차한 싸움을 이어가기보다는 유문에서의 삶 자체를 포기해버린 것이다. 그는 첫 문안 인사 자리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신을 떠보

통한 자질 현시하기, 주변의 멸시를 관대한 처사로 넘기기” 등을 꼽았다. (한길연(2021), 앞의 글, 2021) 이는 장혜애가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이후에 총부로서 가문 내에서 완전히 자리매김하기까지의 장기적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는 개과천선한 직후에 가문의 내집단으로서 수용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5) 물론 장혜애가 용서받고 유문에 수용되는 것에는 적국인 진양공주의 옹호 또한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고은임(2025), 앞의 글, 134~135쪽 참조)

는 시부의 말에 부모의 후사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얻으면 유세창을 거절하고 산간에서 지내겠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후 유세창과 남소저 부부에 문제가 생기자 설초벽은 이를 실행한다. 시부모와 유세창에게 차례로 자신의 결심을 알리고 유문을 떠나버린 것이다. 유우성과 이 부인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을 보면, 유문에서 설초벽의 존재가 문제적이며 그가 떠날 경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그는 자신이 유문에 잉여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분란의 소지가 된다고 말함으로써 유문의 불편한 시선들을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그는 한달에 두 번씩 유문을 들를 뿐 그 외에 모든 시간을 자신의 집에서 보낸다. 그리고 유문에 방문할 때에도 이전에 쓰던 침소로 가지 않고 이 부인을 모시고 잠으로써 공개적으로 유세창의 애정을 거절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행동을 두고 비로소 설초벽에 대한 평가가 뒤바뀌기 시작한다. 그동안 설초벽의 이질성을 못마땅해하던 시누이들조차도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의 행동을 칭송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다.²⁶⁾ 그간 설초벽의 뛰어난 자질과 인품으로도 해소되지 못했던 부정적인 인식이 이 단계에서 비로소 존중으로 변화했다.

유문의 물리적 공간을 벗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설초벽이 유문으로부터 이탈했거나 또는 유문으로부터 배제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유세창에게 부부의 도를 끊자고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두 번 유문에 들러 시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유문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것을 보면, 그가 유문의 일원이 아니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공간적 분리와 유세창과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 유문으로부터 인정받고 비로소 내집단

26) 일삭의 두 번씩 뉴부의 나이가 구고 친척을 좇고 남시를 더하여 혼연이 반기미 7 업스며 혹 수삼일을 머뜨러도 존고과 시침하여 스실의 도라가지 아니하니 녕능휘 태산 갓흔 정을 발뉘 길히 업스디라. 구고 숙미 그 형스를 칭복하여 더욱 스랑하고 남시 그옥이 감동하여... <유씨삼대록> 권지육, 27~28면.

에 편입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장혜앵이 개과천선을 계기로 반전을 이루었다면, 설초벽은 평범한 사족 여성들은 하지 못할 결단을 통해 동등한 사족 여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한번에 타파하였다.

4. 편견으로 본 수용과 배제

여성이 시가의 일원으로 수용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전통 사회에서 혼인은 물론 그 이후의 삶은 남편과의 일대일 관계가 아니다. 다각 관계는 일대일 관계보다 훨씬 복잡한 역동 속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언제나 안고 있고 그 결과 여성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때 주변의 개입이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 주는가 하는 것은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²⁷⁾

그런데 앞서 편견을 중심으로 살펴본 유문은 내/외집단의 경계가 매우 견고하고 수용에 있어서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내집단 선호가 두드러졌다. 이 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영웅의 면모를 지닌 설초벽을 향한 반감이다. 여타의 국문장편소설에서 여성 영웅으로서의 품모를 갖춘 인물에 대해 주동 가문에서 폄하와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설초벽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집단으로 인정받은 일원을 위협하는 것에서 오는 반발 심리로 일정 부분 이해가 된다. 만약 설초벽이 첫 번째 부인으로 들어왔다면 이보다는 거부감이 적었을 것이다.

27) 국문장편소설에서는 부부 갈등에 윗세대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종종 그러지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성이 시가 구성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 처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 위로와 같은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제시받기도 한다.

이를 뒤집어보면 내집단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수용된 후에는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인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유세창 부부의 갈등에 개입한 것은 정실보다 부실과 친밀하여 가문의 질서가 어그러진다는 점 그리고 이미 가문의 일원으로서 애뜻하게 아끼는 남소저가 슬퍼한다는 두 이유 때문이었다. 남소저의 입장에서 보면 내집단으로 수용된 이후에 시가 일원들과의 유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성들이 시가에서 자신들의 불안정한 위치를 지탱해 가는데 같은 세대의 여성들로부터 상당한 도움과 정신적 원조를 받아왔으며, 여성들 간의 연대를 형성했다는 사실은 다른 작품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⁸⁾

한편 내/외집단의 경계 속에서 내집단으로 온전히 수용되지 못한 인물들의 고통은 비가시화된다. 작중 장혜애의 악행이 탄로난 후 유세형과 진양공주는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유문은 평화로운 일상을 구가한다. 그런데 서술자는 이를 “유부의 영락이 흠할 것이 없이 즐긴다”고 전달하고 있다.²⁹⁾ 표면적으로 유문의 구성원인 장혜애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문의 영화와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가 철저하게 소외된 존재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설초벽의 난처한 처지나 그를 향한 적대감에 대한 연민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내집단 구성원들의 우월 의식이 두드러진다. 작중 유문은 엄격한 가풍을 고수하는 한편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따라서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와 가풍이 변화하기 보다는 그들이 가풍에 맞출 것을 요구하게

28) 이지하는 여주인공을 모해하는 악인형 여성이 형상화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첩관계 속에서 여성끼리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이지하, 「18,9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인식의 다층적 면모 : 국문장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 형상화 비교」, 『고소설 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130쪽 참조)

29) 뉴부 영낙이 부마와 공쥬 화락한 후로 더욱 흠홀 거시 업시 즐기는 가운데... <유씨삼대록> 권지삼, 97~98면.

된다. 한편 그에 미치지 못하거나 가풍에 어긋나는 대상에게는 극단적인 반감이라는 반작용이 뒤따른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국문장편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동 가문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고 그와 대조를 이루는 인물 혹은 집단을 상정하여 그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국문장편소설군의 일반적 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뛰어난 인품과 자질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수용되지 못한 설초벽의 사례는 특기할 만하다. 게다가 수용하지 않는 것과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작중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세 소저 가운데 유설영과 유현영은 숙녀의 도리를 갖춘 빼어난 인물로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그 편협한 태도는 더욱 문제적이다. 실상 이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유세창 부부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서술자가 설초벽을 흠없는 인물로 그리면서도 그에 대한 반감을 삽입한 것은 유문의 가풍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일원들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요소로 보인다. 열등하다고 인식한 이를 향한 주동 인물들의 노골적 조롱과 혐오는 외집단이자 하위 집단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쉽게 용인됨을 반증한다. 엄격한 가풍으로 내부를 단속하고 자부심을 유지하는 것에는 그렇지 않은 집단을 향한 적대적 우월감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씨삼대록>의 주동 가문인 유문에서 규정하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경계는 하나의 선이 아니다. 안과 밖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유문과 혼인으로 맺어진 가문은 그렇지 않은 가문에 대해 내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국가 단위로 확장할 수도, 가내의 소집단으로 축소할 수도 있다. 즉 유문은 겹겹이 싸인 내집단과 외집단의 경계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때 그 경계마다 다단한 편견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새로운 구성원의 수용을 가능하고 관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앞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구분짓기는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³⁰⁾

하지만 구분짓기는 필연적으로 외부로 향한 편견과 그로 인한 피해, 즉 희생을 수반하게 된다.

물론 장혜애와 설초벽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에서 내린 수용 또는 배제의 판단은 분명히 가변성을 띤다. 장혜애는 투기를 일삼던 악인에서 가문을 이끄는 총부로 자리매김하였고 작품 후반부에서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설초벽도 놀라운 선택을 통해 가내 구성원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켰다. 이 점은 마찬가지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견고한 내집단 지향성을 보이는 가문에 편입된 〈소현성록〉의 화부인과 대조를 이룬다. 화부인은 기본적으로 빼어난 외모와 자질을 지녔으나 가문의 격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끝내 완전한 입지를 확보하지 못한다. 여기에 비하면 〈유씨삼대록〉은 여성 인물의 행적이나 변화의 노력에 따라 내/외집단의 경계를 유연하게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배제에서 수용으로 입지가 변화하는 것이 여성의 역할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인식은 일정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은 애초에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로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즉 남성 가문의 일원들에게 자신의 덕성과 능력을 증명해야만 한다. 작품 속에서 신인(新人)의 도덕성과 비도덕성, 선행과 악행은 이와 연관된 맥락 하에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 남성 가문의 일원들이 여성을 수용하는 데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지워진다. 이는 여성이 평범한 일상을 구가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얼마나 지난하고 치열해야 하는가를 반증한다.

30) 리-시앙 리사 로즌리, 정환희 역, 『유교와 여성』, 필로소피, 2023, 156쪽 참조.

참고문헌

『소현성록』 1-4, 소명출판, 2010.

『유씨삼대록』 1-4, 소명출판, 2010.

고은임, 「고전소설의 처첩(처) 관계와 사양지십」, 『문학치료연구』, 74, 한국문학치료학회, 2025, 115~148쪽.

공혜란,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부부간 폭력의 대물림 고찰」, 『외국문학연구』, 69, 한국외국어대학교, 2018, 29~58쪽.

김서운, 「〈유씨삼대록〉에 형상화된 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 갈등과 그 현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4, 253~290쪽.

이승복,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정-부실 갈등의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 77, 한국어교육학회, 1992, 221~241쪽.

이지하, 「18,9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인식의 다층적 면모 : 국문장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 형상화 비교」, 『고소설 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111~144쪽.

장시광,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어문논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223~269쪽.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8, 1~374쪽.

최수현, 「〈유씨삼대록〉 속 이민족 여성의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307~344쪽.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2009, 171~196쪽.

_____, 「개과한 여성의 독보적 인물로 거듭나기 과정의 서사화: 『유씨삼대록』의 ‘장혜앵’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3, 한국여성문학회, 2021, 223~258쪽.

Elliot Aronson, 구자숙 외 역, 『사회적 동물』, 탐구당, 2010, 1~703쪽.

리-시앙 리사 로즌리, 정환희 역, 『유교와 여성』, 필로소픽, 2023, 1~340쪽.

ABSTRACT

The Aspects and Meanings of Prejudice in *Yussi samdae-rok*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Daughters-in-Law-

Hwang, Ji-hyu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anifestations and functions of prejudice in the late Joseon Korean classical novel *Yussi samdae-rok* (*The Three Generations of the Yu Family*), focusing on the representation of daughters-in-law. During the Joseon period, women's social positions shifted through marriage as they left their family and entered those of their husbands. Their success in adapting to these new environments determined the course of their lives. This study examines how prejudice—formed and perpetuated in these processes—affected women's acceptance or exclusion within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The analysis centers on two characters, Jang Hye-aeng and Seol Cho-byeok, both of whom enter the Yu family as second wives and occupy marginal positions. The family's evaluations of them arise from preconceptions based on prior information such as parental reputation, rumors, and regional background, which solidify into prejudice through initial encounters like wedding ceremonies and greetings. Jang Hye-aeng is branded as a "seductive woman," while Seol Cho-byeok is dismissed as a "monster from the remote region," each confronting distinct forms of bias. This study explores three dimensions of prejudice: its reinforcement through conformity and collective sharing, its influence on everyday life and interpersonal judgment, and its dissolution through acts of self-verification. Prejudice is shown to strengthen through hierarchical and generational dynamics—downward diffusion from elders in Jang Hye-aeng's case and horizontal diffusion among sisters-in-law in Seol Cho-byeok's. Initial prejudgments shape subsequent evaluations of behavior, with negative or positive first impressions determining

whether similar actions are condemned or excused. Both characters eventually challenge and subvert these biases through self-proving actions. Ultimately, prejudice in *Yussi samdae-rok* operates as a social mechanism that upholds familial order and sets the boundaries between in-groups and out-groups. While women integrated into the in-group receive affirmation and protection, those excluded suffer unacknowledged pain. Although the novel presents women's efforts as capable of overcoming prejudice, such a portrayal simultaneously erases the male household members' responsibility, revealing the intense struggles women endured simply to sustain ordinary lives.

Key Words prejudice, conformity, group dynamics, female, classic novel

논문투고일: 2025.10.21. 심사완료일: 2025.11.11. 게재확정일: 2025.11.20.
--